

사회

■ 광주 우치동물원 재미있는 동물가족 이야기

최고 스타 코끼리 몸값 한 마리 2억 35세 알래스카 불곰 광주생활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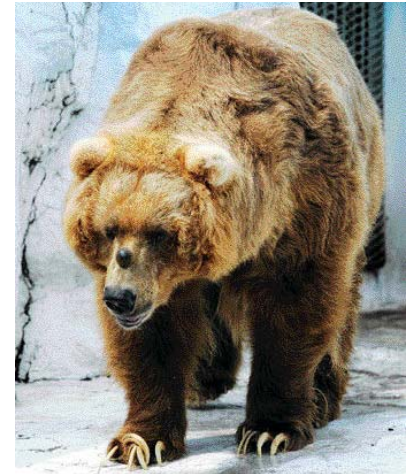
몸값 1억원을 자랑하는 기린.

포유류·조류·파충류 등 총 131종 사육

동성애 표범, 독방신세 거쳐 완전한 사랑

최근 코끼리 임신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끼리와 기린 등은 동물원 내에서도 단연 인기 동물이다. 특히 코끼리의 경우 '코끼리 타기 체험'이 가능해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스타 동물들의 '몸값'은 얼마나 되고 터줏대감 동물은 어떤 종(種)일까?

이러 침팬지가 3천만 원이며 ▲하마 2천만 원 ▲바다 악어·단봉낙타 1천500만 원 ▲얼룩말이 1천200만 원 ▲알래스카 불곰 1천만 원 ▲표범 400만 원 등이다. 동물의 왕(王)인 사자와 호랑이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한 마리당 800만 원씩이었다. <터줏대감 '알래스카 불곰'>=우치동물원의 터줏대감은 알래스카 불곰이다. 지난 1991년부터 우치동물원에서 지내왔으며, 이전에는 광주 사육동물원에 있었다. 광주에서만 25년 가량 지낸 것이다. 현재 나이는 35세. 평균수명이 30~40년임을 감안하면 장수한 셈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90세 가량.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최고령 동물인 알래스카 불곰의 털 색깔은 흑갈색이다. 길이 1.8m, 몸무게 700kg의 이 불곰은 곰 종류 중 가장 큰 곰으로 꼽힌다. 특히 1926년 발표된 알렉산더 밀네(Alan Alexander Milne)의 동화 '곰돌이 푸우'(Pooh Bear)의 주인공인 '푸우'를 소재로 한 캐릭터 상품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알래스카 불곰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터줏대감 알래스카 불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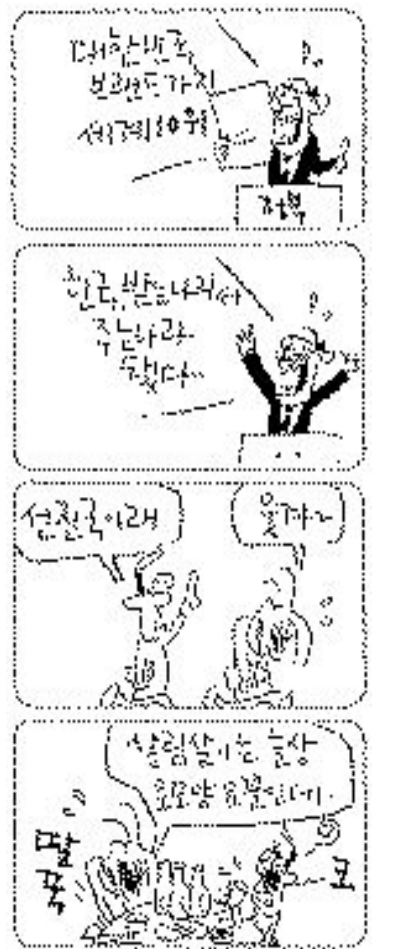


최고 스타 코끼리 가족. 최근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컷을 사랑(?)한 수컷 표범>=우치동물원 사육사들은 한때 표범 한 마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5년 전 다른 동물원에서 들어온 이 7살 난 수컷 표범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성격 기호로 사육사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 표범이 수컷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암컷은 무심하게 공격하는 바람에 한 우리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컷을 향한 이 표범의 관심은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집착으로 변해 동료 수컷마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 차례 독방 신세를 거친 후에 완전한(?) 사랑을 하는 표범으로 거듭났다. 우치동물원 최중욱 수의사는 "동물도 환경이나 반응에 따라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한 우리에서 암컷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65) 김중두



생선회·알약 먹고...

신안서 30대 선원 숨져

목포해양경찰은 신안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30대 선원이 생선회와 함께 알약을 먹은 뒤 숨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1시께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 인근 해상서 경남선적 11t급 연승어선 A호의 선원 김모(39)씨 등 선원 2명이 생선회를 먹고 알약을 복용한 후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온몸이 마비증세 보인다는 구조요청에 따라 경비함정을 통해 진도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이날 오전 숨졌으며, 또 다른 김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시 김장철 한 달 간

음식물쓰레기 특별대책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광주시가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 동안 배추와 무 등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시간을 새벽 6시~오후 3시에서 새벽 5시~오후 4시30분으로 2시간 이상 연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 반입량도 하루 48t에서 53t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구청 별로 1개반 3명의 기동처리반을 구성,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증차별 발원 국내 첫 기소 '유죄'

외국인에게 인증차별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27일 형법상 모욕죄로 약삭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지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남새난다"는 등 인증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에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후세인씨는 이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증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 /연필뉴스

호남대에 'IT사이언스 스퀘어' 건립

국내 최초, 30일 기공식

광주에 국내 최초로 미래 정보기술(IT)의 체험과 IT기업 제품 홍보 등을 위한 체험형 전시관인 'IT 사이언스 스퀘어(IT Science Square)'가 들어서다.

27일 광주시와 호남대 등에 따르면 최첨단 IT체험교육과 IT산업을 접목시킨 IT사이언스 스퀘어 기공식이 30일 오후 호남대 캠퍼스에서 열린다.

전체 면적 6천6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비 124억원과 민자 91억원 등 모두 215억원을 투입하는 이 전시관은 2011년 6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전시관에는 관람객이 문화와 녹색성장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린 IT 체험관', IT 발전사를 연대별로 전

시하고 미래 기술을 게임과 미디어 아트 등의 형태로 즐길 수 있는 'IT 박물관' 등이 들어선다. 또 IT 기업의 상설 전시와 신제품 시연 및 체험을 위한 기업관,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전시관 등 11개 전시관이 꾸며진다. 이 전시관은 광주시와 호남대, 광주시교육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광산업진흥회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추진하며 관련 기업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정이사 선임 또 연기... 정상화 '난항'

사분위, 결론 못 내 다음달 10일로

일부 단체 회원들 오물투척 소란도

조선대학교 정이사 선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정상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조선대는 임시사회조차 지난 20일로 임기가 끝나 '이사 부존재'상태여서 학사행정 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대 등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이사 선임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사분위원은 조선대와 종전이사,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심의, 최종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분위원들이 종전이사인 박성삼·정애리씨가 정이사 후보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의견을 추가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으며, 더욱이 종전이사측의 정이사 참여(총 9명 중 4명)를 놓고 적극적 배분과 소극적 배분을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선대와 종전이사 등 양측 어느 곳에도 반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이사를 선임하자는 원칙 아래 9명 중 일부는 선임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장 앞에서는 모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40여명이 '친북 세력 배제' 등을 외치며 일부 사분위원에게 오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 정이사 선임을 결정해야 할 사분위 전체회의가



조선대 정이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한국연구재단 사무실 앞에서 40여명의 모 단체 회원들이 '친북 세력 배제' 등을 주장하며 일부 사분위원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 회의장 입장을 저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구 재단 측의 있을 수 없는 망동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면서 "26일 구 재단 측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분위원들의 앞을 가로막은 채 '친북세력' 운운하며 오

물을 던진 것은 사분위 무력화 기도 로, 조선대 정상화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일 겨울비

강수량은 5mm 미만

11월의 마지막 휴일인 29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겨울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27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7도, 낮 최고기온은 11도~1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3~4도 가량 높은 수치다.

휴일인 29일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비가 그치면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11도로 예상되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 37% "서장 이상 지휘관 개방 찬성"

동국대 임준태 교수 설문

현직 경찰관의 약 37%가 경찰 서장부터 경찰청장까지 이르는 모든 지휘관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한국경찰연구학회)는 전국 경찰관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전체의 36.7%가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3개 직위를 모두 개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장과 지방청장만 개방을 허용하는 답변은 22.9%로 파악됐고, '개방 자체를 반대한다'와 '경찰청장만 개방하자'는 의견

은 각각 20.5%와 17.1%로 집계됐다.

개방 직위에 적합한 외부 인사를 1~7명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선 전직 경찰관이 평균 5.6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찰관학과 교수(4.47), 관공사 출신 법조인(3.91), 시민단체 전문가(3.42)가 뒤를 이었다. /연필뉴스

가족 허위 입원 ... 보험금 2억여원 챙겨

순천경찰청은 27일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손모(4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손씨의 아내 김모(40)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부부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6개월여 동안 고흥과 보성지역의 병원에 허위 입원하거나 자녀를 입원시켜 60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보험설계사를 했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의 이름으로 모두 13개 회사 3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시골 개업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식도염이나 발목 타박상 등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내일 겨울비' (Tomorrow's Winter Rain) with a table of regional forecasts, and a 7-day weather outlook.